

혼조조카마치 해설판 3 쇼닌마치와 부케마치의 경계 「다이몬(大門)」

だいもん

에도시대부터 이 부근에는 혼조조카마치 시설인 「다이몬(大門, 성 통행을 위하여 만든 출입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동쪽이 부케마치, 북서쪽이 쇼닌마치에 해당하는 데도마치, 후루유키마치가 있었으며 다이몬은 부케마치와 쇼닌마치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당시에 혼조조카 중심부에 들어가려면 일본해 연안을 지나는 우슈하마 가도(사카다가도, 훗코쿠가도라고도 함)의 유리군 연안 남부와 고요시 강 건너편의 이시와키(가메다 번령)는 어느쪽이나 반드시 남북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 요코마치를 지나 다이몬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코마치의 출입구는 의도적으로 크랭크 모양의 갈고리 모양 도로로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놓고 또 번소와 다이몬을 설치해 사람들의 출입을 관리했습니다.

조카 평면도에는 다이몬 서쪽 울타리 안에 최하급 무사 저택과 감옥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이몬은 에도시대부터 마을 단속 등을 실시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신분에 따라 거주구역이 정해져 있던 혼조조카에서 다이몬은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물자가 오가는 길목이었던 것입니다.

이 설명판은 공익재단법인 동일본철도문화재단의 지방문화사업 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